

빛의 시-차(들)

박지수

J는 눈을 감고도 그 사진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가을 길목이라 녹색 잔디밭에는 군데군데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열기가 빠진 햇볕은 뜨거워도 청량감이 감돌았다. J는 앤퍼니 하더웨이 시그니처 농구화를 신었고, 진청색 스트라이프 청바지에 회색 스웨트 긴팔 티셔츠를 입었다. 잔디밭에서 군인 헬멧을 쓰고 작은 소나무 밑에 쭈그려 앉았다.

J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군 복무 중인 형에게 딱 한 번 면회를 갔던 때였다. 아버지와 함께 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J에겐, 형을 면회하기 위해 아버지와 단둘이 떠난 여정은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다. 용인에서 서울 불광동의 서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 그리고 파주 문산의 1사단까지 J와 아버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평소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던 J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나와서였다. 파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불광역 근처의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왔기 때문이다. J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아버지는 바로 주변에서 가장 가까웠던 다방을 가리켰다. J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손님이 없는 다방을 가득 채웠던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아버지의 옆 실루엣은 J에게 생경한 모습이었다.

파주 문산의 1사단에 도착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 모습을 드러낸 형은 낯선 사내가 되었다. J는 생경한 아버지와 낯선 형과 함께 어머니가 챙겨준 음식을 묵묵히 입에 넣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서로 할 말은 별로 없었다. 면회실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니, 할 일도 할 말도 없는 세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잔디밭에서 햇볕을 쬐었다. 아버지가 J를 향해 카메라를 들자 형은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J에게 씌워 주었다. 아니, 형이 J에게 헬멧을 씌워주자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었던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청바지 차림에 군인 헬멧을 쓴, 조금 우스운 모양새의 사진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눈을 감고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사진을 기억하는 건, 오직 J뿐이다. 그 사진을 찍은 아버지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형도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 이기억하던 사진을 이제 J만 남아 혼자서 기억해야 하는 셈이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도, 또 너무나 선명한 사진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 의심을 멈출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진 속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나였을까, 정말 아버지와 단둘이 형의 면회를 갔었을까.

그날을 함께 기억하는 아버지나 형에게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물음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기에 먼지와 함께 뒤섞여 날리던 다방의 햇볕도, 면회실에서 ‘전-진’ 경례 소리를 외치던 형의 목소리도, 잔디밭 사이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옮기던 개미의 모습도, 집으로 돌아올 때 탔던 비둘기호의 덜컹거림도, 그 리듬에 맞춰 코를 골던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도 J에게 모두 거짓말 같은 장면으로 전락하고 만다. 거짓말처럼 변질된 기억과 사진의 분명함과 선명함은 더없이 소용 없고, 한없이 부질 없을 뿐이다.

M의 사진도 그런 소용 없음과 부질 없음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이 아닐까. 죽음을 앞둔 외할머니 주변에 머무는 장면과 사물을 시각적으로 축지하는 <light volume> 그리고 스크린으로, 맨눈으로, 망원경으로 본 아이슬란드 풍경의 시-차를 가능하는 <sight-lag> 두 시리즈에서 강하게 환기되는 것은 결국, 부재를 둘러싼 정서와 분위기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축지하거나 가능하여도 다가올 부재 또는 이미 벌어진 부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모든 이미지들은 소용 없음과 부질 없음 사이에서 점멸될 것이다. 아무리 만지고 만져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외할머니의 병원과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면밀하게 응시한 <light volume>시리즈는 이제 곧 사라질 목소리를 청취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M은 외할머니 주변의 풍경과 사물들을 살뜰히 챙기면서도 정작 외할머니의 얼굴은 놓치고 만다. 아마도 M은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외할머니의 얼굴을 찍는 일이야말로 곧 생겨날 커다란 구멍을 메우는 일이겠지만, M은 외할머니의 얼굴을 피해 주변의 작고 사소한 풍경들을 에둘러 채집한다.

이는 어쩌면 다가올 부재를 준비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최대한 부재를 지연시키려는 마음이 서로 엇갈린 것이 아닐까. 마치 형의 영정 사진을 찍으며, ‘미리 찍어두면 더 오래 산대’라고 믿었던 J의 어머니처럼. 어쩌면 부재를 향한 분열된 시선이 <light volume>의 더께를 이루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서로 어긋나 보이는 시-차를 계산하는 <sight-lag> 시리즈에서 M이 구해야 하는 답은 두 이미지 사이의 거리와 차이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위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해줄 좌표값이 선행되어야 시-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야 속에서 시공간이 화이트 아웃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마킹하는 좌표값은 데이터로써로만 존재할 뿐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화이트 아웃되는 백야에서는 낮과 밤의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조차 무색해진다. 백야의 장막에서는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진 빈 자리도 곧 부재의 징후나 신호는 아닌 것이다. 무언가를 면밀히 바라봄으로써 부재를 촉지했던 <light volume>에서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너무 빛이 많아 오히려 가시적/비가시적 구분이 무용해지자 시각적인 구분과 연동됐던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진 속에 자주 등장하는 반사판이 의미심장한 것은, 보이는 존재 또는 보는 과정을 반사시키기 때문이다. M은 면밀히 바라보는 대신 반사시키는 쪽을 택한 것 같다. 쌍안경조차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미지를 반사시키는 도구로 보이며, 형태를 달리해 자주 반복되는 물의 이미지 (폭포, 얼음, 눈) 또한 빛을 반사시키는 매질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경계와 구분이 표백되는 백야에서 반사시킨 이미지 (빛)는 결국 어디를 향하는가. 어쩌면 현실에선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차원으로 치부되지만, 그 어딘가에서는 엄연히 보이는, 존재하는 차원이 아닐까. M의 외할머니도, J의 아버지와 형의 존재도 그저 딱딱한 부재로 굳지 않는 부드럽고 유연한 세계에 가까운...

사진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고, 사진은 부드럽게 숨쉬지 않고 멈춰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죽음과 닮아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는 그런 사진을 보며 자신의 기억을 일으켜 세워 멈춰진 장면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사라진 순간에 다시 눈으로 숨을 불어넣어 추억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건 마냥 소용 없는 짓일까, 저항 부질 없는 짓일까. 반대로 그건 과연 얼마나 소용 있는 일인가, 또 과연 얼마큼 부질 있는 일인가. 그 사이의 무게와 그 사이의 시-차를 가늠하면 무수한 오류와 오해, 착시와 착각들이 저마다 반짝거리며 나타났다 흩어진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의 구멍을 메우려는 애도와 기억 그리고 사진이란 그런 반짝임에 뿌리를 내려 사방으로 뻗어간다. 덧없이 가볍고 맥없이 알팍하게.